

한국음악교육학회 2025 추계학술세미나 보고서

A Review of 2025 KMES Autumn Conference

이현수*

Hyunsu Lee

2025년 11월 1일(토)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주관으로 추계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AI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 우리 학회의 주제를 <모두를 위한 포용적 학습: 학습 격차 해소와 디지털 교육 다양성 존중을 위한 걸음>으로 정하고 디지털화 되어가는 교육과 학습자를 위한 음악교육의 방향을 조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최진호 학회장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학술세미나는 이현수박사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이날은 주제 발표자 4명이 발표를 하였고 4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공연 현장의 서도민요 복원과 음악교육 연계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문봉석 학예연구사님이 발표를 해주었다. 아직 교육 현장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서도민요를 서도소리가 가진 고유성과 보편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발표는 ‘내향적 학습자를 위한 음악 수업의 설계: 블렌디드 음악활동 및 포레멘토링의 효과 검증’이라는 주제로 김성지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었다. 지속되고 있는 학습자의 성격 편차, 특히 내향적 학습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습자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수업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내향적 학습자를 위하여 멘토링과 블렌디드 형식의 학습 연구를 접목하여 소외될 수 있는 학습자 집단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를 발표해 주었다. 동일한 두 학급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구성하고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를 사전·사후로 검증하여 내향적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상승과 리코더 공개적 수업 수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 발표는 ‘보이지 않는 격차의 발견: 음악적 행위주체성 진단을 통한 포용적 교수-학습 설계’의 주제로 박승이박사님이 연구 발표를 해주었다. 이 발표에서 음악적 행위주체성과 그 핵심 요인, 6E라고 불리는 자기조절 전략, 자기효능감, 정체성 형성, 창의성, 협력 활동, 경험 확장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음악적 행위주체성은 교실 안팎으로 순환하면서 성찰과 동시에 새로운 목표 설정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6E의 데이터 기반 진단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에 맞춤형 지원을

* 부산교육대학교 강사

설계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가 학습자의 보이지 않는 학습자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네 번째 발표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국악 대중화 교육: 디지털 플랫폼과 포용적 교수학습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건우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었다. 한류 콘텐츠 속의 K-pop 음악을 국악과 융합한 사례를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는 시도를 연구 성과로 보여주었다. 포용적 학습이라는 대전제 아래 학습자들이 주도하여 곡을 선정하고 전통 악기를 체험하며 장단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K-pop과 국악을 디지털 패드로 연결하여 융합 형태로 진행한 수업을 발표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국악과 K-pop 음악이 디지털 기기와 연결되는 플랫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는 국악의 대중화 방안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습의 격차 해소와 디지털 교육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추계학술세미나에서는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서도민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블렌디드와 또레 멘토링을 활용하여 내향적 학습자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와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음악적 행위주체성의 연구, 그리고 한류와 국악을 디지털 기기로 연결하여 국악수업을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시도는 향후 급격하게 변화할 교육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이와 같이 의미 있는 학술세미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음악교육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